



## (주)재능인쇄, 고모리 상업윤전기·요시노 무선제책기 도입 고객 요구 부응하는 설비업그레이드로 '제2의 창업'

(주)재능인쇄는 지난 7월 24일 고모리 상업윤전기 시스템35와 요시노 무선제책기 베가21 가동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가동식에는 박성훈 재능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현우 대표, 관계사 CEO 등이 대거 참석했다.

자료제공 | (주)재능인쇄

(주)재능인쇄는 고모리 윤전기와 요시노 무선제책기를 통해 상업 인쇄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간당 1만8000부 생산이 가능한 최신형 하이텔베르그 XL-106 매엽기를 비롯한 매엽인쇄기 3대와 고스M-600 윤전기, 하마다 신문윤전기 등의 인쇄시설과 시티치마스터 중철기 2대, 스탈 접지기 4대, 무선제책기, 재단기 등의 각종 후가공 기기를 갖추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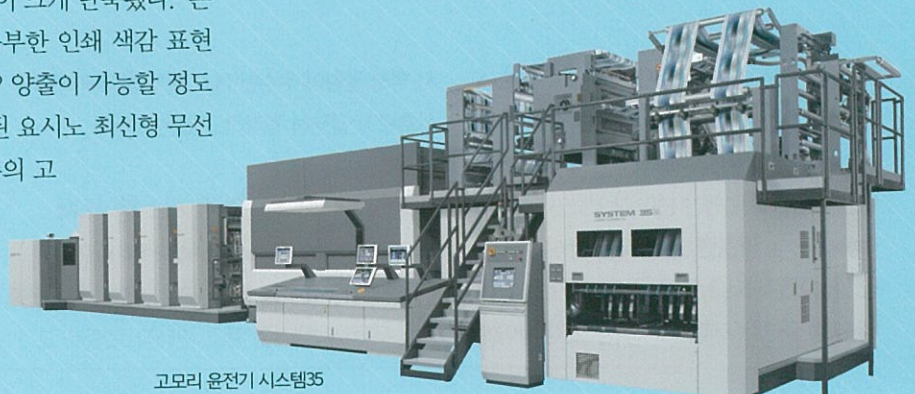
### 고급 인쇄물 생산·보안인쇄 분야 진출

이번에 (주)재능인쇄가 도입한 상업용 윤전기의 베스트셀러인 고모리 시스템35는 각 장치의 전 자동화 및 통합제어시스템의 장착으로 작업 준비시간 및 전환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손지가 억제되고 생산성이 향상됐으며, 풍부한 인쇄 색감 표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4×6배판 4P/8P 양출이 가능할 정도로 기능이 우수하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요시노 최신형 무선제책기인 베가 121은 시간당 1만5000부의 고속 생산과 접지물 검사 카메라 및 중량감지기 부착으로 제품의 불량률이 없어 고품질 인쇄물 제작이 가능하다.

(주)재능인쇄는 '인간중시 고객중시 행

동중시'의 경영이념을 모토로 한 모기업 (주)재능교육에서 고객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1993년 법인으로 분리 독립했다. 이후 고품질 인쇄물 제작과 고객만족 실현이라는 굳은 목표 아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설비투자로 인쇄시장 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올해 창립 21주년을 맞은 (주)재능인쇄는 관공서 정기간행물, 각종 도서 출판물, 화보집 등의 고급 인쇄물 생산을 근간으로, 2009년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서울시, 경기도교육청 시험지 인쇄업체로 등록돼 보안 인쇄분야에 진출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업계 현황과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설비업그레이드를 통해 제 2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



고모리 윤전기 시스템35